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거리에서 대부분의 젊은 이들은 리시버를 켜고 다닌다. MP3 플레이어, PMP는 골라듣는 재미, 혼자보는 재미다. 젊은이는 괜찮다. 자기가 듣고 싶은 노래만 골라듣든, 보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만 골라보든, 제멋이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권력자가 자기 귀에 쑥 들어오는 말만 골라듣는다면? 재앙이다. 지금의 암울한 한국사회를 특징짓는 단어 하나를 고르라면 단연 단절 즉 소통부재일 것이다.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은 더 이상 대화하지 않는다. 다만 무시할 뿐이다. 경기침체, 빈부격차 심화, 청년실업, 남북관계퇴행 등등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쌓여 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문제를 다 덮고도 남을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둠을 일거에 밝혀 줄 불빛을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권력자이다. 어느 조직에서건 윗사람이 귀를 닫으면 아랫사람들은 말문이 막히는 법이다. 시민들의 함성이 권력자의 침묵의 벽에 가로막힌다면, 다음 차례는 시민이 함구할 차례다. 우리는 지금 침묵이라는 암 덩어리를 키우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호 『기억과 전망』은 〈소통과 실천〉을 특집으로 삼았다. 하승우의 “시민불복종에 관한 정치철학적 고찰”, 하상복의 “광장과 정치” 그리고 홍일표의 “‘이중의 탈제도화’ 압력과 한국 시민운동의 대응” 등 세 편의 논문으로 꾸며 보았다. 인간

은 먹는 입과 동시에 말하는 입을 가졌다. 먹는 입만 만족시키면 말하는 입은 적당히 막아버려도 된다는 사고는 위험하다. 이 특집 논문들이 침묵의 우물에 떨어지는 소리 없는 빗방울이 아니길 바란다. 〈일반논문〉으로는 황병주의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이창언의 “분신자살의 구조와 메커니즘 연구,” 이영미의 “문화운동의 정체성과 본질에 대한 질문,” 장귀연의 “대기업 노조의 비정규 노동자 배제,” 김명희의 “한국의 국민형성과 ‘가족주의’의 정치적 재생산” 등 다섯 편을 실었다. 분신은 사회적 약자의 외마디 비명에 다름 아니다. 침묵은 ‘우리’와 ‘그들’을 갈라놓을 뿐 아니라 ‘우리’ 내부도 균열시킨다. 〈쟁점〉에는 ‘미네르바 사태’를 법률적으로 검토한 박경신의 “미네르바 사태를 통해 본 표현의 자유”를 실었다. 〈서평〉으로는 백낙청의 『어디가 중도이며 어째서 변혁인가』(창비, 2009)와 최장집의 『민중에서 시민으로-한국민주주의를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둘베개, 2009)을 대상으로 김정훈이 “어둠 속에서 길찾기”를 기고했다. ‘권력에 대한 예의’ 보다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해왔던 한 시대의 어른이며 지식인을 뽑는 일은, 평자의 말처럼, “유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권력자도 말로는 소통하자고 한다. 그런데 내 주파수에 맞추어야 대화가 된다고 한다. 억지다. 부르면 들리고, 손짓하면 보이는 거리에서 왜 무전기를 들고 대화에 나서야 할까? 서울광장, 청계천광장, 광화문광장은 만나서 소통하자는 공간이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발명하신 위대한 한글로 읽고, 쓰고 말한다. 소통하는 데 번역이 필요 없다. 해석도 필요 없다. 목소리 높여 악을 쓸 필요도 없다. 마음이 통하면 말도 통한다. 침묵의 소리가 광장을 매우게 내버려두지 말자. 암이 발견되면 조기에 치료해야 한다. 침묵은 깨야 한다. 때론 함성보다 속삭임이, 속삭임보다 침묵이 더 울림이 크다. 시민의 소리가 곧 하늘의 소리다. ~~XXXX~~

2009년 11월 20일, 정일준